

# 슬픔·기억·위로·연대…음악으로 부르는 179명의 이름

12·29 제주항공 참사 1주기 맞아 추모음악회…26~27일 광주예술의전당 시립국악관현악 ‘진흔, 기억’·광주시향 ‘179명의 이름을 기억하며’ 무대

2024년 12월 29일, 즐거운 여행길에 올랐던 이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사랑하는 179명과의 작별은 너무도 갑작스러웠고, 마지막 인사조차 끝내 허락되지 않았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이름들은 여전히 기슴속에서 또렷하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국악과 클래식의 언어로 ‘기억’과 ‘위로’를 건네는 추모공연이 마련된다. 공연은 오는 26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리는 동시에 남겨진 유가족과 현장에서 수습과 의료 지원에 나섰던 이들, 여전히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지

역민에게 연대의 손을 내미는 자리다.

첫날인 26일 오후 7시에는 시립국악관현악단(상임지휘자 박승희)의 ‘진흔, 기억’이 무대에 오른다. 국악의 울림으로 망자의 넋을 달래고, 공동체가 함께 슬픔을 주하는 시간이다. 사회는 배우이자 국악인 오정해가 맡았다.

공연은 시립창극단이 선보이는 ‘진도씻김굿’



소리꾼 장사익

으로 시작된다. 진도에서 전승돼 온 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 망자 천도굿으로, 길을 닦고 한을 풀어 떠난 이가 이승의 매듭을 내려놓도록 둔 의식적 음악이다. 한이 서린 춤과 음악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 못한 이들의 마음을 대신해 작별을 건넨다.

이어 국민 소리꾼 장사익이 무대에 올라 ‘찔레꽃’, ‘奚宮頌’, ‘아리랑’을 노래한다. 장사익의 절제된 목소리는 애도의 시간을 차분히 이어가며 관객이 각자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여백을 남길 예정이다.

이날 공연의 중심에는 이정호 작곡가의 국악 레퀴엠 ‘진흔’이 놓인다. 시립국악관현악단을 비롯해 시립합창단·창극단·소년소녀합창단과 목포·순천시립합창단 등 광주·전남 6개 예술단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 무대다.

‘진흔’은 진도씻김굿을 모티브로 한 국악 레퀴엠으로 국악관현악과 합창, 의식적 선율이 어우러진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지난 ‘진흔’ 연주회 모습.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작품이다. 라틴어 가톨릭 미사의 합창 가사와 진도 씻김굿 길닦음에 쓰이는 ‘애소리’, ‘나무아미타불’ 등을 차용해 종교의 경계를 넘어선 위로를 전한다. 망자의 넋을 달래는 동시에 남겨진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의미를 담았다.

이튿날인 27일 오후 5시에는 광주시향(예술감독 이병우)이 ‘179명의

이름을 기억하며’를 주제로 무대를 이어간다. 공연은 ‘슬픔·기억·위로·연대’의 흐름으로 구성됐다.

첫 곡은 사무엘 바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추모 음악으로 루스벨트 대통령과 아인슈타인의 장례식, 9·11 테러 추모식 등에 연주되며 널리 알려졌다. 혼악의 선율은 애도의 정서를 차분히 이끌고, 클라이맥스를 지나 다시 가라앉는 흐름은 고통과 안식으로 이어지는 삶의 궤적을 떠올리게 한다.

이어 존 윌리엄스의 ‘종달새의 비상’이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서의 협연으로 연주된다. 안단테 소스테누토의 느리고 평온한 템포 속에서 혼의 선율은 높이 치솟기보다 조심스럽게 하늘을 스치는 듯한 인상을 남긴다. 담담하면서도 섬세한 연주는 남겨진 이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김현서는 만 15세의 나이에 제58회 파기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대학 최연소 3위를 수상하고, 청중상과 최연소 결선 진출자상을 함께 받은 떠오르는 신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작가 황석영이 직접 무대에 올라 고인을 위한 글을 낭독한다. 최근 5년 만의 신작 ‘할매’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문학계 거장이 음악과 함께 추모의 메시지를 전한다.

마지막 무대는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3번 제6악장’. ‘사람이 나를 살게 한다’는 문장으로 알려진 이곡은 말러의 작품 세계에서도 가장 깊숙한 감정을 품은 악장으로 꼽힌다. 광주시향은 애도와 연대의 마음을 음악에 실어 공연을 마무리한다.

이병우 지휘자는 “이번 연주회는 슬픔과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겹쳐지며, 관객들이 같은 시간 속에서 고인을 떠올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1년이 지났지만 기억은 여전히 곁에 있다. 이 음악회가 그 마음 가까이에 놓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석 무료,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황석영. ⓒ전명

로 무대를 이어간다. 공연은 ‘슬픔·기억·위로·연대’의 흐름으로 구성됐다.

첫 곡은 사무엘 바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다.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서

## ‘유쾌하게, 그리고 씁쓸하게’

백상옥 개인전, 내년 1월 7일까지 예술공간 집

백상옥 작가는 오랫동안 ‘신발을 쓴 얼굴’을 모티브로 개성적인 작품세계를 일궈왔다. 익명성과 은유적 상황이 교차되는 지점을 이색적인 조형 언어로 구현해왔다.

백 작가는 이번에는 ‘유쾌하게, 그리고 씁쓸하게’를 주제로 전시를 연다. 19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예술공간 집.

그의 작품들은 현실을 살아가는 인물들이 부지불식간에 마주하는 장면을 초점화한다. 현대인들은 뜻하지 않은 아이러니컬한 상황과 마주하는데 그것은 삶의 우연이라는 축면과 맞닿아 있다. 의도하지 않은 장면과의 조우는 때로는 유머스럽고 때로는 씁쓸함을 안겨준다. 흥미로운 것은 작가는 그러한 상황

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인물들을 자유롭게 내던져 준다는 것이다.

‘침목의 부표’는 서로 다른 방향을 흥시하고 있는 인물의 모습을 담았다.

침목 속 각자의 방향을 바라보는 인물들은 마치 물위에 둔 부표처럼 어떠한 공유점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두 손위에 올려진 안전표지판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추구하는 어떤 바람 같기도 하다.

‘collector’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을 하는 인물을 형상화했다. 일명 이야기 수집가. 현대 인들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앞



‘침목의 부표’

으로 이야기를 수집하는 인물이 새로운 직업군에 포함될 날도 멀지 않은 듯하다.

백 작가는 “나는 부유하는 수많은 생각과 사회 속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을 ‘적당한 틀’에 담아보려 했다”며 “그 틀은 완전하지 않다. 오히려 느슨하고 흔들리며 유동적이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박형동 시인 ‘껍딱과 알깡’ 출판기념회…24일 장성 땅아래 오리마을

최근 김현승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7번째 시집 ‘껍딱과 알깡’을 펴낸 박형동(시진) 시인이 출판기념회를 연다.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장성군 장성읍 장성댐 인근에 자리한 땅아래 오리마을, 이번 출판기념회는 자녀 교육 제안을 담은 박 시인의 수필집 ‘땅바닥에서 키워라’ 발간도 겸해서 펼쳐진다.

장성 출신으로 전남문협 회장을 역임한 박 시인은 현재 광주 북구 신용도서관과 장성군립중앙도서관에서 문예창작반 글벗들과 함께 시와 수필을 가르치며 공부하고 있다.

시집 제독에 차용된 ‘껍딱’, ‘알깡’ 이는 전라도 말인 ‘껍데기’와 ‘알멩이’를 차용한 것으로 은퇴 이후 노년의 삶에 대한 사유와 의미를 담고 있다. “어머니 아버지가 너의 껍데기였듯이 너 또한 껍데기가 되리니”라는 표현은 우리 모두는 ‘껍데기’나 다른 존재이기에 겸손하며 서로를 품으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수필집 ‘땅바닥에서 키워라’는 아이들을 ‘상품’이 아닌 ‘작품’으로 키워야 한다는 철학을 견지한다. 저자는 모두 5남매를 뒀다. 큰아들은 서울대 법

대를 나와 광주에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고 둘째는 과학고·카이스트·지전원을 거쳐 치과의사로, 셋째 또한 치대를 졸업하고 치과의사로, 네째는 고교교사, 막내딸은 초등교사로 저마다의 인생을 살고 있다.

저자는 자녀들 교육 비결에 대해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것보다 공부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해줬다”며 “또한 기도와 신앙에 토대를 두고 저 자신부터 본을 보이도록 한 점이 비결인 듯 하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를 나와 광주에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고 둘째는 과학고·카이스트·지전원을 거쳐 치과의사로, 셋째 또한 치대를 졸업하고 치과의사로, 네째는 고교교사, 막내딸은 초등교사로 저마다의 인생을 살고 있다.

저자는 자녀들 교육 비결에 대해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것보다 공부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해줬다”며 “또한 기도와 신앙에 토대를 두고 저 자신부터 본을 보이도록 한 점이 비결인 듯 하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를 나와 광주에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고 둘째는 과학고·카이스트·지전원을 거쳐 치과의사로, 셋째 또한 치대를 졸업하고 치과의사로, 네째는 고교교사, 막내딸은 초등교사로 저마다의 인생을 살고 있다.

저자는 자녀들 교육 비결에 대해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것보다 공부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해줬다”며 “또한 기도와 신앙에 토대를 두고 저 자신부터 본을 보이도록 한 점이 비결인 듯 하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061) 752-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 전남예총 ‘전남종합예술제’ 성과 나누고 격려

문화상 시상·명예예술인 지정서 수여

(국악), 박대업(국악) 등 4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명예예술인으로서는 박지선(시), 김정국(한국화), 박운희(서예), 송준(한국무용)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2부에서는 전남예총이 주관한 전남종합예술제가 이어졌다.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도지사 공로패와 여성·청년예술인 표창, 전남예술문화상, 전남예총 공로상 등 각종 시상이 진행되며 예술인들의 성취를 기념했다. 특히 오랜 기간 협회와 현장을 이끌어온 예술인과 실무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이 전해졌다.

(사)전남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전남예총)는 지난 17일 오후 남악 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제29회 2025 전남종합예술제’를 열고, 전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들을 시상했다. 이날 행사는 전남 지역 예술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전남도 주관으로 제69회 전남예총 문화상 시상과 전남 예술인 지정서 전달이 이뤄졌다.

임정호 전남예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술적 성취를 이룬 예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남예총은 앞으로도 예술인들의 창의적인 활동과 지속 가능한 예술 환경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제69회 전남예총 등 수상자들의 모습.

〈전남예총 제공〉

## 전남예총 ‘전남종합예술제’ 성과 나누고 격려

문화상 시상·명예예술인 지정서 수여

예향 전남의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성과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축제의 장이 열렸다. 오랜 시간 지역 예술을 지켜온 이들의 노고를 기리고, 예술의 내일을 함께 그려보는 자리였다.

(사)전남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전남예총)는 지난 17일 오후 남악 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제29회 2025 전남종합예술제’를 열고, 전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들을 시상했다. 이날 행사는 전남 지역 예술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전남도 주관으로 제69회 전남예총 문화상 시상과 전남 예술인 지정서 전달이 이뤄졌다.

임정호 전남예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술적 성취를 이룬 예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남예총은 앞으로도 예술인들의 창의적인 활동과 지속 가능한 예술 환경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